한국메세나협회
Korea Mecenat Association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공모
- 최종 결과 안내 -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공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최종 선정작 및 작가를 발표하오니
선정되신 분들께서는 시상식 참석과 전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관련 내용은 개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안내된 바와 같이
주제 적합성, 예술성, 기술역량, 대중성(개방성), 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차 심사 총평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의 열의에 깊이 감사드리며,
하반기에 개최될 이번 공모의 선정 작가 전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 래-

NO	작품명	작가명
1	Macro Hybrid Scenes	구기정
2	디바 스펙트라 (Diva Spectra)	염인화
3	에피몽제로 (가제)	보비스투스튜디오
4	태양의 파빌리온 Pavilion of Sun (가제)	SoftMatters (소프트매러즈)
5	불을 사냥하는 사람들 (The Flame Chasers)	류성실

※ 서류 접수 순 정렬

◎ 문의 | 공모 운영 사무국 (월~금, 10:00-18:00 / 02-578-9422 / lgmediaart@naver.com)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공모
- 2차 심사 총평 -

12건의 제안서는 모두 '빛과 인간을 담아내다'라는 공모 주제를 나름대로 충실히 해석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했다. 순수미술 작업과 대중적인 미디어 작업들이 잘 안배되어 있었으며, 미술, 게임, 애니메이션, 건축, 디자인 간의 장르 융합적 시도가 두드러졌다. 기술적으로도 컴퓨터 그래픽, 2D/3D 애니메이션, 생성형 AI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들이 눈에 띄었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LG아트센터 서울 건물 자체를 주제로 접근하는 시도도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심사의 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실현 가능성, 작가적 태도, 기술적 이해도, 완성도, 신진작가 발굴, 다양한 관람객과의 소통 가능성이라는 여러 요소를 감안하였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기획안들이라 마지막까지 경합이 치열했다. 기존의 작업 세계에 토대를 두면서도 공모 주제를 성실히 해석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해석을 보여주는 기획안이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지나치게 공모 주제에 과하게 맞추거나 기존의 작업을 약간 수정해 반복한 것 같은 기획안은 완성도나 발전 가능성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 요인이 되었다. 대중성을 과하게 강조해 일차원적인 시각 효과에 치중하거나 기존의 상업적 미디어 작업과 별다르지 않아 보이는 경우에도 좋은 점수를 주지 못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열려있는 태도로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을 듣고 전시 장소에 맞춰 작업을 수정, 보완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었다. 아쉽게 수상작에 들지 못했지만 훌륭한 기획 콘셉트와 가능성을 갖춘 작업들도 많았는데, 이들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5편의 수상작은 올 하반기에 LG아트센터 서울 아트라운지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선정 작품과 안도 다다오의 건축, 작품 전시에 활용될 LG OLED 디바이스가 어우러져 공연과 미술, 건축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예술 경험을 관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술과 예술이 접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후원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진지하고 건설적인 태도로 공모에 응해주신 모든 지원자들께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27일

LG아트센터 서울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신진작가 공모
2차 심사위원 일동